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2019 / No.135



정직한 기도

토마스 아퀴나스

오 주여
우리에게 어떠한 무가치한
욕망도 끌어내릴 수 없는
한결 같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시련도 지치게 만들 수 없는
정복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무가치한 목적도 시험할 수 없는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당신을 찾는 근면을
당신을 마침내 포용할 수 있는
신실함을 주소서

내 영혼의 속량하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했기에 공부했고 깨어 있었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당신을 거역하는 말은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02	성시	정직한 기도 · 토마스 아퀴나스
04	말씀의 샘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마6 : 34) · 유상진 담임목사
06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놀기 · 김도희(초등1부)
07		여름 성경학교 가는 날 · 유지나(초등2부)
08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서정인(중등부)
09		슬럼프와 하나님 · 남윤수(고등부)
10		수련회에 대한 단상 · 김대환(청년공동체)
12		어린 예수들의 천국 · 이지나 성도(학부모)
14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15	해피파티	화보
16	성지순례	성지순례 일정
18		성지순례 중 만난 하나님 · 성외경 집사
20	새생명잔치	새생명잔치 스케치 · 김웅태 장로
22	새가족 간증	내 피난처요 안식처는 오직 주님뿐 · 김민정 성도
23		하나님만 바라보던 레아처럼 · 박은아 성도
24	근속교사 간증	벌써 30년 · 이관택 안수집사
25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 최미경 집사
26	예닮동산	예닮동산(94기 주바라기)을 다녀와서 · 박준영 성도
28		예닮 94기 영암교회 안영희 집사입니다 · 안영희 집사
29	비전스쿨	창세기를 알아가자 · 안서정(중등부)
30	영암학당	요한계시록과 아모스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네요! · 강미량 권사
32	영화칼럼	죽음과 고통을 이기는 신앙 이호경 감독의 ‘교회 오빠’ ·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34	추천도서 서평	ACTS - 사도행전 비주얼 가이드 · 박성현 안수집사
36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38	영암소식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마6:34)



유상진 담임목사

몇 해 전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회에서 프란츠 리스트(F. Liszt)의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를 연주했습니다. 청중들의 요청에 응한 앙코르 곡이었는데, 그는 이 곡의 마지막 연습이 5개월 전이었다며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빠르고 넓은 도약과 어려운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을 자신의 감성을 담아 연주한 그에게 청중들은 환호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습니다.

연습도 없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표현한 그를 사람들은 과연 프로 연주자라고 평했습니다. 많은 시간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일에 쏟은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보이는 무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땀방울로 만들어 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수많은 ‘오늘’이 모여 이룬 삶은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 주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며,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늘날만 존재합니다. 오늘날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7) 말씀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염려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6:30~31).

아울러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먼저 구할 것은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염려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묵상하는 삶에서 초점을 옮겨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 예수님은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십니다. 염려가 주는 상상력은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내일을 사느라 존재하는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오늘’ 뿐입니다. 그럼에도 어제와 내일에 집착해서 염려하느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는 좋은 태도는 기쁨으로 받는 것이요, 기쁨은 감사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던 바가 성취되는 날을 ‘내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더 모은다면, 자녀가 원하는 진로가 열린다면, 승진한다면,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 문제가 풀린다면 등등. ‘내일’이 되어야만 기쁨이 올 것이라 여기기에 ‘오늘’을 불안과 우울 속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다리던 내일이 오면, 다시금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느라 오늘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라는 환상이 주는 기쁨을 찾느라,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함께하시며 오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을 누리는 길은, 지금 이 순간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새 날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시다.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Y**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놀기



김도희(초등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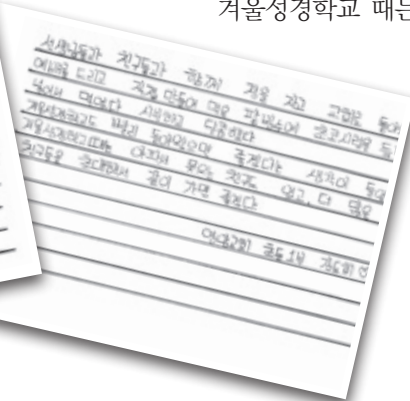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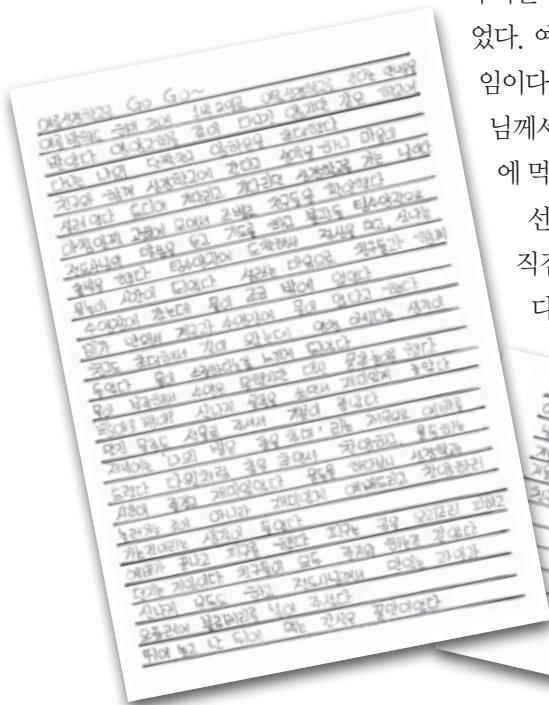
여름성경학교로 GO GO~

여름방학도 하기 전에 1박2일로 여름성경학교를 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영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나의 단짝친구 임하은을 초대했다. 친구와 함께 성경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학교를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서 조별로 친구들을 확인했다. 전도사님의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불광동 팀수양관으로 출발을 했다. 팀수양관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신나는 물놀이 시간이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조금 밖에 없었다. 비가 안와서 계곡과 수영장에 물이 없다고 했다. 친구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엄청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물이 부족해서 수영은 못했지만 대신 물총놀이를 했다. 뽕야! 뽕야! 신나게 물총을 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멋진 물총도 선물로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는 '나의 발은 춤을 추며'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었다. 율동을 하다 보니, 성경학교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피구를 했다. 피구는 공을 요리조리 피하고 던지는 게 임이다. 친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신나게 운동도 하고 전도사님께서 맛있는 과일과 요플레에 블루베리를 넣어 주셨다. 뛰어 놀고 난 뒤에 먹는 간식은 꿀맛이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교회로 돌아왔다. 예배를 드리고 직접 만든 팔빙수에 초코시럽을 듬뿍 넣어서 먹었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내년 겨울성경학교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성경학교 때는 아파서 못 오는 친구도 없고, 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Y**





여름 성경학교 가는 날



유지나(초등2부)

첫째 날! 상동수양관에 도착하여(예정 시간보다 늦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숙소에서 문 두드리고 도망하는 놀이를 하며 쉬는 시간을 보냈다. 4시쯤 되어서 교회에서 받은 티 입고 바닷가 가서 놀았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서 너무 짜서 괴로웠지만 계속 이렇게 놀다 보니 면역(?)이 생겨서 나중에는 덜 괴로웠다. 바닷가에서 한참 놀고 상동수양관 숙소로 돌아와 깨끗하고 반짝하게 씻었다. 식당에서 저녁밥을 허겁지겁 먹고 방에 들어가 소화도 시키고 쉬다가 예배드렸다. 창세기부터 배웠다. 말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랑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이 정도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옥수수와 감자를 먹고 방으로 가서 코 zzz 잤다.

다음날 아침 둘째 날! 아침 먹고 예배드렸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다음번엔 성경을 잘 읽고 기억해야겠다. 그 다음은 방에서 쉬다가 오전에 바닷가 가서 놀고 오후에 다시 가서 또 놀았다. 또 반짝반짝하게 씻고 방에서 엄청나게 놀고 저녁을 먹었다.^^ 삼겹살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배부르게 먹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모션! 다 배우고, 각자 조별로 방에서 외우고 나서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 조별 모션 릴레이를 했다. 우리 조는 '관중' 조인데 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등 먹었다.^^* 그 다음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방에서 밤을 새웠다.

셋째 날! 교회로 올 때 버스에서 자고 교회로 와서 카레 먹고 예배드렸다. 다음에 또 가면 그 때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Y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정인(중등부)

저는 중등부 3학년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서정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할 뻔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과 과외 일정들로 인해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수련회가 있는 주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래미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첫 날은 부래미마을에 이동하기 전에 롯데월드에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지만, 보슬비 정도만 내려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전부 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즐기는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여 첫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 찬양 때, 베이스 기타로 연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제공해주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모두 맛있었습니다. 숙소도 자연 친화적이었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련회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야식 게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셋째 날에 물놀이 장소의 경사진 곳에서 튜브 타고 슬라이딩하며 함께 놀았던 것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즐겁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또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해준 교회와 중등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Y





슬럼프와 하나님



남윤수(고등부)

나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 결심이 흔들리는데, 교회에 나가고, 기도 할 때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나로서는 계속해서 그 음성을 직면하지 않고 무시했었다. 이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나를 보았다.

그렇기에 찬양하지 못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거부했었다. 패배하는 것 같은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수없이 무너졌던 내가 한없이 싫어졌다. 슬럼프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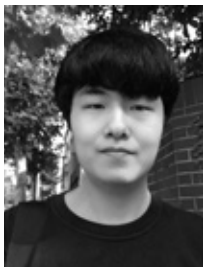
때마침 수련회의 주제도 reborn이었다. ‘진짜 하나님이 유학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기도회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수 없어 전도사님께 개인 상담을 요청했다.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하셨다. 만약 내가 유학의 길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조언 해 주셨다. 전도사님께 상담을 받으니 유학길에 대한 걱정은 가벼워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여러 번 무너져버린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힘들 것 같았다.



그 후 숙소에서 수련회 테마곡을 반복해서 들었다.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 한 줄의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가사였다. 이 가사를 듣고, 아무리 이러한 나라도, 무기력한 나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은 미리 택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었다. 솔직히 이러한 점을 느낀 그 당시에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다. 그러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느끼는 점은, 내가 아직도 그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자만해서 내가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다. 앞으로는 낮은 자세로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공부할 것이다. **Y**

수련회에 대한 단상



김대환(청년공동체)

8월 15일. 시간을 보니 9시다. 늦었다.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단체 생활을 별로 즐기지 않는 나였지만, 삶을 돌아보고 일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새 가족이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알고 싶은 목적도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Y와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 높은 텐션에 당황했지만, 누구와 있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12시쯤에 도착해서 강사님의 첫 말씀을 들었다. 모세 오경이라고 적힌 프린트물을 받았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말씀이길 기대했다. 첫 수업의 핵심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심지어 신약보다도), 몇몇 큰 관점들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좋다는 것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신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물이 열납된 것은, 아벨의 삶이 열납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삶의 예배가 선행된 후에야 의미가 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그것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무엇이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edify) 행동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수준위가 얼마나 열심히 수련회를 위해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캐치마인드와 사진 퀴즈 모두 신선했다. 교회 내에서 대중 문화가 소비되는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두번째 집회에서는 땅 신학, 창조 사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땅 신학이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세계 각 지역의 주인이셔서 민족들에게 지대를 받고 땅을 빌려주신다는 개념이다. 지대를 내지 않는 민족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시고,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결국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대가 무엇인지였는데, 이사야 5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공의(미시파트)와 정의(췌데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미시파트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췌데크는 서로 형제로 대하는 공동체성을 말한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땅을 얻고 뺏기는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이 스스로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지니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지대를 드리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8월 16일, 오전에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볼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몇 내용만 다루고 질문을 받았다.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와서 강사님이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실 정도였다. 몇 가지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은 성경의 숫자 표기인 게마트리아와 자유 의지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에 대한 것들이었다. 게마트리아 부분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인이 남성만 60만이라는 것이 당시의 이집트 인구에 비추어볼 때 말이 안되고, 600가족(엘레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유 의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성경의 기록과 관련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조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기하시는(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달란트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나 신앙적 깊이는 다 빛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능이 많고 적음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며,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진 뒤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개인 기도를 한 뒤에, 단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로 둘러 앉아서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공감할 수 있었다. 내 인생도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큰 삶의 문제에 부딪혀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어려웠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돌면서 짝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K누나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걸 조사하고 다니는 걸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2박 3일의 수련회 일정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유익했고 즐거웠다. 나로서는 수련회 덕분에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훨씬 늘어난 것 같다. 수련회 내내 고생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수준위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Y**





어린 예수들의 천국



이지나 성도(학부모)

맑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부모와 함께 진행한다고 했다. 지금 보다 더 어릴 적에는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 아이가 자라 유치부가 된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얼이는 엄마 아빠가 내내 같이 있을 거란 얘기에 벌써 한껏 신이 났다.

여름성경학교는 마치 축제 같았다. 곳곳이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모두가 환영받았다. 다 함께 울동하며 찬양을 부르고, 선생님들이 혼신의 연기로 표현해주시는 말씀 이야기에 웃으며 빠져들었다. 각 가정을 위해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고, 마음껏 뛰어놀았다. 오며 가며 눈인사만 건네던 다른 부모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제하기도 했다. 찬양, 말씀, 기도, 교제, 예배의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예배가 시작될 때였다. 전도사님께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노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얼이를 사랑해.' 길고 긴 노래였다. 아이들은 들쭉이며 시골시골했지만, 한 아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불렸다. 언젠가 얼이가 하나님이나를 아시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이들은 그 답을 알았으리라. 나는 그것이 천국의 풍경이라 생각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리는 곳.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껏 준비를 하셨는지, 준비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의 마지막에는 오늘 온 모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해 쓴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주셨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모든 편지 속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모든 편지에 사랑이 적혀있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닫는 시간이었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내가 쓴 편지가 아닌데도, 내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닌데도 몽클해졌다. 편지를 읽기 전 선교지 아이들 영상을 선교사님의 고백과 함께 보여주셨는데, 화면 속의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시큰거렸다. 부모가 되고 난 뒤 깨닫는 수많은 감정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단기선교를 다니고, 사역을 했지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마음으로 흘러온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복음이 마음에 심

기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듯 마음이 열리고 친밀한 관계가 덧입혀졌다. 수 많은 아이들이 각자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린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랑스러운 작은 예수들이 각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받아 들고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장난치고 있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다.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작은 전구가 발등에 붙어있는 슬리퍼를 선물해주셨다. 열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몇 번이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물 받은 슬리퍼를 신고 저녁 내내 거실을 춤추듯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기뻐한다. 말씀은 빛이 되어 아이의 발등에 내려앉고 우리 집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걸음마다 환해졌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사는 특권을 누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삼십 년 만에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다. 날마다 우리 곁의 작은 예수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子和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름 성경학교에서 나는 보았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자유로운지, 어떻게 온 몸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뛰어드는지... **Y**

이지나 성도님은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해’의 저자입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해피파티



성지순례 일정



제1일	인천 - 이스탄불 (5/26, 일요일)
21:00	인천공항 집합 및 출발
제2일	이스탄불 - 카이세리 - 갑바도키아 - 콘야 (5/27, 월요일)
05:15	이스탄불공항 환승
08:15	카이세리 공항도착 및 갑바도키아로 이동
	- 30곳 이상의 석굴교회가 있는 괴레메 골짜기 -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지낸 지하도시 데린 구유 - 데브란트 계곡, 파사바 계곡 - 바위산인 우추히사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생활하던 바위동굴)
	성서상의 이고니온인 콘야로 이동 [약 4시간]

제3일	콘야 - 비시디아안디옥 - 라오디게아 - 파묵갈레 (5/28, 화요일)
	- 사도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 목화성이라 불리는 파묵갈레로 이동 -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책망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 성서상의 사도 빌립의 순교 교회인 히에라폴리 (현,히에라폴리스) - 눈이 덮인 것 같은 석회봉이 웅장한 노천온천
제4일	파묵갈레 - 빌라델비아 - 사데 - 에페소 - 체스메 - 히오스 (5/29, 수요일)
	사도요한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초대 7대교회 중 B.C 1200년에 세워진 도시 사데교회 (현 사르디스)로 이동 - 사데교회터 순례 - 에베소로 이동 - 에베소 (사도요한 교회, 누가의 무덤, 고대에베소의 아고라, 두란노서원, 셀수스도서관 등) 체스메로 이동 - 선박편을 이용해 히오스 섬으로 이동
22:15	야간 페리편으로 피레우스 항으로 출발

제5일	피레우스 - 아테네 - 고린도 (5/30, 목요일)
06:15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에 도착 및朝食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 이동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 파르테논의 북쪽의 이오니아식 에렉티온 신전 -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극장 디오니소스 극장 - 그리스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 갇혔던 소크라테스 감옥 - 아레오바고(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시 스토아학파와 논쟁 중 붙들려 말씀하셨던 장소) - 무명용사의 비 및 국회의사당
	고린도로 이동하여 성지 답사
	-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 고린도 운하 및 유적지 - 그리스에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신전인 아폴론신전 - 바울이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은 곳으로 지금은 바다에 잠겨있는 겐그레아 항구 -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을 기념하여 지어진 사도바울 기념교회
제6일	델포이 - 메테오라 - 데살로니카 (5/31, 금요일)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의미의 메테오라로 이동
	- 메테오라 수도원 답사 (수도원 한 곳 방문)
	데살로니카로 이동
제7일	메테오라 - 데살로니카 - 빌립보 - 까발라 (6/1, 토요일)
	-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순교한 디미트리우스를 기념한 디미트리우스 교회 -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방문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사도바울 기념교회) 경유하여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된 최초의 지역인 빌립보로 이동 - 사원형극장, 빌립보교회, 사도바울과 실라의 지하감옥, 문밖 강가 세레터, 루디아 교회 답사 - 까발라로 이동 -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의 동역자들과 처음 도착한 네압볼리(까발라)의 네압볼리 - 바울 도착 기념교회 답사
	터키와의 국경인 입살라 국경을 통과해서 터키에 입국

제8일	이스탄불 (6/2, 일요일)
	-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거주한 톱카프궁전 - 오벨리스크와 뱀기둥이 있는 히포드롬 -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는 성소피아교회 - 푸른타일로 장식되어 있는 블루모스크 - 보스포러스해협 크루즈 (정규선)
제9일	이스탄 - 로마 (6/3, 월요일)
08:15	이스탄불 공항 출발
09:55	- 로마 도착 - 바울 참수터(세분수교회) -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터 위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교회(Scala Coeli) - 사도바울의 무덤이 있는 바울 교회 - 초기 기독교가 탄압받을 때 그들이 숨어 지내던 파신처이자 지하무덤인 카타콤베
제10일	인 천 (6/6, 목요일)
	- 폼페이로 이동 - 베수비오스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 유적지 -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 절벽에서 아름다운 소렌토 - 조망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로 이동 - 산타루치아 항, 가스텔누오보 성 조망 - 로마로 귀환
제11일	로 마 (6/5, 수요일)
	- 로마 성지답사 - 작은 국가 바티칸시국의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대성당 - 콜로세움 외관, 포로로마노 외관 -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인 트레비 분수
19:50	로마공항 출발
23:25	이스탄불 공항 환승
제12일	인 천 (6/6, 목요일)
17:40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성지순례 중 만난 하나님



성외경 집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유상진 담임 목사님과 이철웅 부목사님 포함 우리교회 13명, 타교회 다섯 분, 인솔자 한 분, 총 19명이 터키, 그리스, 로마로 11박 12일의 꿈같은 성지순례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긴 여정 동안의 모든 경험과 에피소드를 짧은 지면에 다 담아 낼 수는 없기에 간단하게 일정을 되짚어 보며 제가 체험한 특별한 사건을 나누어 보려합니다.

기내에서 일박을 하고 둘째 날 아침에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해 바로 카이세리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갑바도키아로 갔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산에 동굴을 파서 생활도 하고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하도시 데린쿠유라고 하는데 극한 박해 속에 믿음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한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과 고단한 삶의 흔적에 짙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라오디게아교회, 빌립 순교교회의 흔적과 유적을 순례하였고 넷째 날 알라세히르에서 빌라델피아교회와 사데교회를 보고나서 에베소로 이동하여 사도요한교회와 에베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돌아다니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화려했으나 퇴폐적인 방대한 도시 에베소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지치고 식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가기위해 히오스 섬에서 야간 페리를 타고 밤새 이동하여 다섯째 날 아침을 그리스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의 이차 전도여행의 루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순이지만 우리는 그 코스를 정반대로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먼저 아름다운 피레우스항구를 잠시 눈요기하고는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을 비롯한 소크라테스 감옥 아레오바고 등을 오전에 보고, 고린도 운하를 시작으로 아폴론신전 겐그레아 항구를 거쳐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했음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 등을 오후에 보았습니다. 이처럼 너무도 방대한 아테네와 고린도의 유적들을 하루에 다 소화해 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던 와중에 나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이드 분으로부터 “이제부터 고린도 지방입니다.”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언젠가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암송하여 맘에 새겨두었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맘속으로 계속 되

뇌이며 일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박물관을 지나 아고라광장 (집회, 재판, 시장등 공공시설이 있는 곳)의 높은 지대에 있는 바울이 재판받을 때 변론하던 단상(BEMA)을 보고 돌아 나오다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곳에서 영어와 헬라어 두 개의 언어로 성경말씀을 새겨 놓은 큰 돌덩이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신 ‘샤케드’란 약속의 말씀까지 (예레미아서 1장 11~12) 떠올려 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일 년 전에, 다음 해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맘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여겨 남편과 같이 성지순례를 신청해 놓았었는데 일 년 후 막상 갈 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맘과 같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둘 다 취소를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혼자 참석한 여행이었기에 사실 그다지 맘이 편칠 않았고 오히려 우울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이후 메테오라, 베뢰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 다시 이스탄불로 왔다 로마를 돌아오는 나머지의 모든 일정도 밝은 맘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통해 제가 느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오가며 들었던 각 나라와 왕조들의 세워지고 없어진 이야기들, 왕성한 복음을 피웠지만 무너져 흔적만 남은 초대교회 모습, 인간이 만들었다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기이한 각종 유적들의 잔재,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베수비오 화산폭발로 150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 발굴된 로마 폼페이 도시…….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에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 여정을 품고 오늘의 걸음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한발 한발 걸어가리라 다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8) **Y**

새생명잔치 스케치



김웅태 장로

영암교회 전도 행사인 새생명잔치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9년 전도부를 섬기며 새생명잔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작년에 진행된 행사와 평가자료를 점검하며 목사님과 부원들이 함께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교회를 찾으시는 분과 흠커밍 데이에 오는 마음으로 과거에 영암교회를 다니시다가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초청의 각도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연초에는 이상만목사님을 모시고 관계 전도에 대한 일차 강의와 이차로 실제 전도의 상황들을 나누며 미인대칭 (미소를 띤 얼굴로 인사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가운데 칭찬하라)이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잔치의 주강사이신 이성미집사님이 전하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도 대원들이 나누어 주는 홍보물과 벽보형 포스터를 만들어 보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별 회장님이 주축이 되어 초대할 VIP를 어떻게 맞이하며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도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교회의 주변을 돌며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상시 전도 대원들과 걷기에 힘이 부족하신 연로하신 권사님 스물다섯 분의 기도 정예부대들의 기도팀과 전도 대원을 양성하는 전도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도학교에는 특별히 저를 포함하여 김진아, 차승원, 이성달, 이현철 등 여러 집사님들이 화요일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교육을 받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결고리를 찾아보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교회 주변을 다니며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과 주민센터와 지하철역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작은 것이라도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각 여전도회의 전도의 주역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남선교회도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연로하신 베드로회, 유니게회, 에스더회 회원님들과 2, 3 여전도회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부의 김인옥팀장님과 상설전도대 팀장인 이금자권사님과 전도부 총무인 김선녀권사님과 회계로 수고하신 김문숙집사님과 상시총무인 김미숙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당일 섬겨주신 모든 영암교회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 250여 명의 초대 받은 분들이 잔치에 참석하였으며 꾸준히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3개월의 과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사역을 볼 때 우리를 불러 주시며 사용하시는 복을 누리는 좋은 헌신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영암의 성도님들도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에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Y

잔치 후 이야기

장년부 위주의 잔치에서 교육부와 청년이 모두 함께하는 새생명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일정을 하루에 함께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축제기간을 설정하여 교육부서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에 초대받아 왔던 VIP가 다음 번 행사에 또 VIP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물과 대접을 받기위해 일회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뿌려지는 씨앗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교회에서 베푸는 풍성한 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풍성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내 피난처요 안식처는 오직 주님뿐



김민정 성도

영암교회 새신자가 된 것은 약 2년 전, 2017년 7월이었습니다. 그 해 봄, 종로에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4월경 영암 교회의 바로 뒤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의 찬양 가사처럼,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저는 철저히 홀로 남겨진 “길 잃은 어린양”이었습니다. 동업한 사랑했던 사람도, 두 달 만에 손두고 제 곁을 떠나게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영업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불세례 찬양단”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찬양팀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주님을 떠나 지금까지 방황하고 고난을 겪었던 세월이 20여 년입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오기로 3개월 버텨가던 중 인근 이웃의 민원으로 가게 앞부분의 매대까지 철거당했을 때, 주님을 다시 찾아 영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 앉았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죠?” 봉헌을 맡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달려오셨습니다. 인상이 너무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우신 분이라 연락처를 선뜻 내어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교회의 영적 목표와 유상진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저는 주님보다 사람에게 기대하며 의지하려 했으며 실망하며 낙심을 반복하기만 했던 저를 주님은 영암 교회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제게 주일마다 친언니처럼 반겨주시

고, 안부 물어주셨던 박현주 권사님과 김미숙 집사님은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해 겨울 제게 골반염이라는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돗물이 쫘쫘 얼어 일주일 동안 영업을 못 할 정도의 한파까지 겹쳐 가게 운영의 막다른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심과 오기로 가게를 운영하려던 제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고, 계약 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접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하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손님을 모시고 간 한 카페가 있었는데 마침 손님은 분식음식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커피도 잘 모르는 제게 주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다는 확신이 생겼고, 새 가게를 인수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전 가게의 아픈 추억과 어두웠던 음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셨던 제 7 여전도회 회장님이셨던 홍정기 집사님께 커피 내리는 법을 일주일간 과외를 받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홍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카페 시작은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새 신자로 1년간 영암교회를 다니며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는 일대일 성경공부였습니다. 40년간 거의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신 최민자 권사님은 저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주일에 갈 때 마다, 예배를 하고 싶도록, 너무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이 질문이 주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싶다는 고백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Y**

하나님만 바라보던 레아처럼



박은아 성도

2019년 2월 첫날 나는 이전 카페 주인과의 최종 미팅을 현재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그날 내가 앉은 자리 뒷편으로 김경자 권사님께서 카페라떼 한 잔과 크로와상을 드시며 창 밖을 바라보시던 모습이 선명하다.

나, 은아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나의 40여 년 남짓의 인생은 대학 졸업 후 19년간 엔지니어로 성실히 일했으며 같은 건물의 같은 직장에서 12년간을 집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내왔다. 대학 시절에 하고 싶었던 해외 거주를 회사의 배려로, 프랑스 파리와 중국 우한에서 한 것은 한국인인 나의 시야를 보다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 초여름 다시 한국 복귀 후 반복되는 업무 일상은 내 삶의 변화를 거듭하여 요구하고 있었다. 불혹 40은 나에게 남은 인생의 제2막은 다른 방향을 가 보라고, 잘 할 수 있다고 도전을 재촉했다.

나의 회사생활의 닉네임은 ‘초궁정’ ‘오투기’였다. 내 자신조차 스스로 변화를 꿈꾸며 살고 있던 즈음에 지인이 카페를 내놓는다는 소식은 ‘한 번 해보지 뭐’ ‘잘 될거야’ 하는 마인드의 나에게 마치 ‘내가 운영을 하면 잘 되리라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 관련 어려움을 몰라서 더욱 매력으로 다가왔다.

2월 중순부터 부지런히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일을 배웠다. 배우는 중에도 카페 운영을 생각하면, 은아 인생 제2막에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 것 같아 내 마음 속에서 핑크빛으로 그려졌다.

4월초 카페인수를 하고서 경기도 용인의 회사, 서울 관악구의 집, 안암동의 카페는 누가 봐도 혼자 모

두 잘 하는 것은 무리수였지만 나는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과한 욕심이었다. ‘회사는 전쟁터이며,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주변 분의 말씀을 내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쓰러지면 안된다는 스스로의 채찍질은 더욱 나를 힘들게 했다. 주말도 혼자만의 시간이 없이 달려 오니 몸과 마음은 평소보다 두 배 속도로 번 아웃 되었다.

마음 편히 쉬고 싶은 간절함에 목마르던 5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늘 같은 시간 카페 오시던 김경자 권사님과 알게 되었고 권사님은 영암교회 예배를 알려 주셨다. 이전의 카페 전임자 또한 김경자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전해주었다.

5월 19일 아침 촉촉한 봄비가 내린 길을 걸어가 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다. 영암교회의 많은 성도님의 믿음과 찬송 그리고 유상진 담임목사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의 설렘과 기쁨 좋은 그때의 긴장감이 좋았다.

김인옥 권사님께서 교회식당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어김없이 인사를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시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세상 속의 존재감이 너무 가볍다 못해 흔적조차 없을 때 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아를 기억하려 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기대어 살면 먼 훗날은 내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바른길로 손을 잡아주시는 김경자 권사님과 김인옥 권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믿음을 삶을 천천히 빠르게 시작해 보련다. **Y**

벌써 30년



이관택 안수집사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교사 이관택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올 해까지 30년간 중등부 교사로 섬겨왔습니다.

처음 교사를 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

다는 것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처럼 시간이 쏜 화살 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함 많은 제가 지금까지 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중등부 시절 장난이 심해 예배시간에 벌서기도 했고 선생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 지금 중등부에서 같이 교사를 하고 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함께 교사를 하고 있으니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30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사 초기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놀란 적도 많았고, 말 듣지 않고 힘들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화도 났고(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 못한 것이지요),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수련회 중 학생이 다쳐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도 있었고 수련회를 통해 은혜 넘치는 경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생활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보람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등부 학생이었던 ○

○○입니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중등부를 다녔고 고등학생 때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2000년 초에 가족들이 한국으로 잠깐 나왔을 때 중등부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여름수련회에 가서 함께 교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지금 호주 캔버라에서 목회하고 계신 홍준섭 목사님입니다. 당시 분반공부시간에 학생들과 일대일 제자양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양순식 선교사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정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교사로 섬겨왔던 30년 동안 중등부에서 만났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으며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믿음으로 가르치고 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Y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최미경 집사

고등학교 시절, 고향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 2층 테라스에 둘러앉아 공과공부를 지도 했던 것을 시작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교회에서는 20년 전, 둘째 아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각각 존재하던 그 때, 초등부에만 9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떠올리기 힘들만큼 예배실이 북적거렸고 섬기는 교사들도 많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고, 이제 저의 두 자녀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육관은 리모델링을 하여 예배실의 모습도 바뀌었고 부서도 초등 1부와 2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한분만으로 다음 세대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선 여전히 영암교회와 초등부를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암교회 초등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 동역하며 힘써주시는 교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교사로 봉사하며 함께 해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늘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귀한 분들께서

언제나 주님의 참사랑을 지금도 실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참된 공동체인 영암교회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시는 교역자분들의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분들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부족한 제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동역자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주님께선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저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심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흘려 보낸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세상을 정말로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전 1:3)

영암교회 성도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Y

예담동산(94기 주바라기)을 다녀 와서



박준영 성도

이번에 예담 동산 주바라기로 참가함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갈 때 올 때 날씨를 지켜 주셨다. 뜨거운 여름 태양별을 잠시 누그러뜨리시고 촉촉이 적시며 축복해 주셨다.

첫날 오후에 교회에 모여 같이 출발하였는데 비가 내려 덤지는 않았으나 묘한 긴장감이 엄습했다. 반갑게 맞아 주는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직 입교 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가 다들 익숙한 듯이 들어가는 당당함에 나는 살짝 번지수를 잘못 찾아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저런 상념으로 음료수 한 잔 하고 잠시 쉬었다가 3일간 머무를 숙소인 듯한 방에 여장을 풀어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 했는지 주바라기들을 맞이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철저히 짜 맞춘 듯이 완벽했다. 94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작은 부분까지 많이 준비하고 세심하게 맞아 주었다.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예담 동산의에서 예수님 체험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보는 장면 하나 하나가 모두 다 새로울진대 바로 예수님 체험을 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다시 누리기 힘든 경험이기도 했다.... 더구나 여기는 평생에 한번 밖에 누리지 못한다 나.

12일 도착 후,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찬양과 조편성을 한 후 팔랑카 낭독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말 엑기스만 잘 정리한 것이었다.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부분 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명도 꺼지고 회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주바라기, 도우미 할 것 없이 모두가 여기 저기서 다 울음바다로 변하는데...그 장면이 어떤 드라마도 흥내를 내기 어려울 만치 장관이었다.

그런데 나는 전혀 분위기에 휩쓸려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울고불고 흐느끼는지 그 점이 너무도 궁금했다. 내가 감정이 메마른 탓일까? 하기에 나는 지금부터 꼭 30년 전 그렇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보낼 때도 흔하디 흔한 눈물 한방울이 나지 않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했으니 말이다.

우리 조인 아리랑방에는 그날 저녁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내가 있는 숙소로 왔다. 오늘 개인 간증이라고 할까 각자가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 등의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도우미가 그림을 각자에게 보여 주고 각자가

기도 제목으로 그림을 고르면 도우미가 취합하여 모두의 기도를 대신해준다. 그때 기도 제목으로 그림을 택한 연유를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거기서 무슨 색다른 착안을 하신 듯 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우리방에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 한 장면마다 나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하나님은 실체만 있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지.덕.체를 갖춘 ‘인격체’라는 것이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느냐 하면 그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550여 명이 실제로 증명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성경책에 나오는 앓은뱅이를 고치는 등의 사건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하나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어 목사님이 선창하면 따라 해야 된다고 하셨다. 목사님은 내 손 위에 목사님 손을 포개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중략)”

그때는 얼떨결에 목사님을 따라 했는데... 하고 나니 마음속이 매우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

‘아...그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하면서도 실감은 나지 않았는데...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박준영 성도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닐텐데...’ 하는 미안함이 솟구쳤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업신여겼는데...’ 하는 후회와 미안함 때문인 것 같았다.

예닮동산을 통해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어렵풋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가면 장로님과 1:1 성경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기로 한만큼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Y



예닮 94기 영암교회 안영희 집사입니다



안영희 집사

먼저 예닮동산을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닮동산이 은혜의 동산임을 알았고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권유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니 딱 맞는 시간표를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

했습니다.

처음에는 타고인들과 서먹한 분위기에서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침묵으로 첫날 저녁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새벽 침묵을 깨고 뜨거운 찬송이 시작되자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산지기의 로요(*1)와 함께 시작되는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은 나의 이상이 무엇이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중간점검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상을 갖기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동산지기의 로요를 통해 통나무는 굴러가고 팔랑카(*2)들의 간증의 편지가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며,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며 순종하는 신앙을 향한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한 저의 신앙이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 한분만 바라보며 그 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고 이제는 제 주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구석구석에서 밝은 모습으로 기도도, 찬양으로, 안내로, 주방에서는 밥풀떼기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이 저의 가슴과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춤추며 찬양과 율동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섬김이들을 통한 세족식은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불러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시는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너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요.

마지막 새벽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였고, 눈을 감고 묵상하던 중 눈을 떠보니 제 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인가 했더니 천사들이 그 새벽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새벽 사랑이 아니면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역시 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 용서도 사랑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스스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삶으로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Y

-데콜로레스

편집자 주)

*1) 로요: 예닮동산의 주제찬양.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노래합니다. 데콜로레스 (De Colores / the colors)

*2) 팔랑카: 예닮동산을 경험한 공동체 지체들이 예닮동산을 체험중인 지체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카드



창세기를 아가자



안서정(중등부)

저는 이번 상반기 비전스쿨에 함께한 안서정입니다. 이번 비전스쿨의 주제는 ‘창세기를 아가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창세기를 공부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전스쿨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대를 타고 내려가 결국 출애굽기의 자손이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된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비전스쿨에서는 성경공부 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간식과 함께 또래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시간도 좋았습니다. 제가 비전스쿨이라는 공동체의 일부였음에 영암교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Y



요한계시록과 아모스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네요!



강미랑 권사

무더운 여름 7월 4주 동안 영암학당 수요반 여름 특강으로 서우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성경통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름 특강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래적 관점과 그 시대적 관점의 이중적 예언형식) 전체 구조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장르로 주제는 당시 교회들과 미래의 성도들에게 '사탄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쓰여졌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유와 상징(환상)들은 시대 상황적으로 로마제국의 검열을 의식하여 초대 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표현과 숫자로 계시가 주어져 박해당하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설명에서 7개의 심판 시리즈를 3개의 7중주(7개 인, 나팔, 대접의 3재앙)로 기억하기 쉽게 구조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때마다 등장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를 하나님의 등장 테마 음악으로 재미있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짧은 4번의 성경 강의를 통하여 계시록 전체 구조(1장-22장)를 로마제국 당시의 시대적 상황 설명과 그 당시 성도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받은 상징과 환상들(여자, 짐승, 아이, 용, 666 등)에 대한 설명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9~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가 계시록에서 상실한 에덴을 회복하며 새 창조로 딱 맞게 끼워진 듯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특강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승리를 보장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꾀계와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예수 증인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일 영암학당 여름 특강은 7월 14일부터 6주 동안 이완희 전도사님께서 아모스를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아모스 성경 연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서(예언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언에 대한 개념 설명,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현재)와 역할에 대한 강의는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훌륭한 Tip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설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떻게 제2의 황금기가 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되어 극심한 타락의 정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타락에 돌이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 올 것을 사나운 맹수가 포효하듯 울부짖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과 음성이 강의하시는 전도사님의 태도와 표정과 음성을 통하여 강렬하게 마음 속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는 동일한 죄성이 내 속에도 있음을 보게 되었고, 회개가 흘러 나왔으며 나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인 9장 11절-15절 말씀을 배으면서 아모스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틈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마다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리라 다짐합니다.

영암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 수요 강단, 새벽 강단, 영암학당에서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항상 서로 주제가 연결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로 영암의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암의 강단을 통하여 현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암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름 특강으로 열강해주신 서우진 목사님과 이완희전도사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며 함께 공부한 영암학당 모든 성도님들께도 각자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Y

죽음과 고통을 이기는 신앙 이호경 감독의 '교회 오빠'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구약의 읍을 발견하다

〈교회 오빠〉 2017년 12월 22일 'KBS 스페셜 앞' 2부작으로 방영된 동명의 프로그램을 재촬영·편집하여 극장용 영화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서른일곱 나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남편 이관희 집사와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아

내 오은희 집사의 투병장면이 신앙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구약 읍기의 진행 과정을 따라 영화는 읍과 주인공 이관희 집사의 신앙적 면모를 비교해 가면서 흥미로운 연출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읍과 같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인이 보이는 반응과 또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묘사하며 죽음 앞에 선 신앙의 어려움과 위대함을 전해주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6:12)

〈교회 오빠〉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기암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이며, 이를 통해 많은 관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웰 메이드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기독교영화니까 무조건 봐줘야 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돈을 주

고 영화관을 찾는다면 영화는 그 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화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영화는 예배와 다르며 영화는 감동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표현하는 시각매체의 특성을 구현해야 하는 문화상품이다. 그러나 잘 만든 기독교 영화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이상으로 신앙에 도전과 성장을 이루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회 오빠〉는 신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영화적 특성이 잘 살아나는 웰 메이드 다큐멘터리 영화다.

무엇보다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교회 오빠〉의 작품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말기암 환자의 투병생활과 부부에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다루는 영화의 정서적 접근은 결코 신파적이지 아니다. 눈물을 짜내기 위해 억지스런 연출 보다는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을 신앙의 자연스러움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 만일 이호경 감독이 대중의 충격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길 원했다면 암환자가 겪는 고통을 극대화 시켰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을 맺는 환자 보다는 신앙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주인공을 택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근본적으로 소재주의를 택한다.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특이한 인물과 사건을 쫓아다니는 특성이 다큐멘터리에는 있다. 부부가 함께 암 투병을 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 신앙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기독교 영화의 훌륭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교회 오빠〉는 분명 다큐멘터리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다큐멘터리는 ‘생각하는 영화’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드라마는 생각하는 순간 망해버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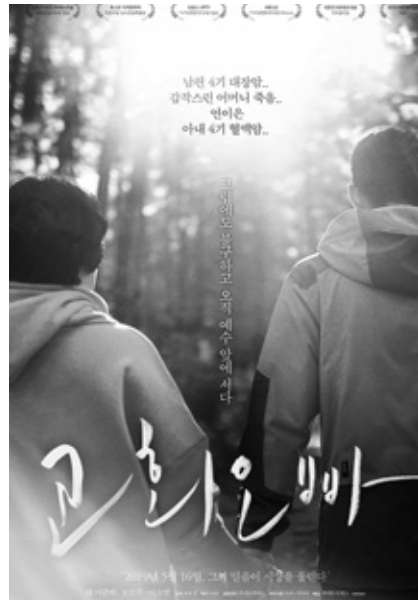
단점을 갖고 있다. 즉 드라마는 관객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계속 자극적인 장면을 쏟아내야 한다. <교회 오빠>는 다큐멘터리로서 충분히 죽음에 맞서는 신앙을 생각하도록 만든다. 영화가 구약의 율기를 따라 진행되며 중요한 율기의 성경구절이 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날 때 마다 관객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배운 율과 성경의 지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영화를 위한 변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난 후 관객들은 마치 한편의 잘 만든 드라마를 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흔히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나는 카메라 앞에서 서는 주인공들은 일반인으로서의 어색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상황에 잘 녹아들고 있다. 이것은 ‘편집의 예술’이 <교회 오빠>에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주인공은 연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만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연기를 하려한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의 본래적 성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 죽음의 상황은 연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일어난 현실일 뿐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이관희 집사는 이제 다른 영화에 다른 배역을 맡아 출연할 수 있는 드라마의 배우와는 다르다. 그는 오직 한 편의 영화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영화계를 은퇴한 셈이 되고 말았다.

감동이란 말은 영화의 오락성 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대중의 가치를 말한다. 대중영화가 오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감동은 즐거움을 포함하여 다양한 감정을 분출시키는 가운데 일상의 기대감을 넘어서는 경험을 넘어설 때 쓰는 말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자신의 생일에 느닷없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는 동료들에게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대통령이 비를 맞으며 전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장면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평범한 집사의 마지막 시간은 감동적이다.

기독교영화가 재미없고 작품성이 떨어져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기독교영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칸영화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도 올해로 16회를 맞은 기독교영화제인 ‘국제 사랑 영화제’도 여전히 활동 중에 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을 뿐이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이며 영화가 문화계를 지배하는 세상에는 이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맛집에 찾아가기 위해 돈과 시간을 써 본 적이 있다면 <교회 오빠>를 찾아 영화관을 수소문 해볼 일이다. 훌륭한 설교 말씀을 찾아 유튜브를 뒤적여 본일 있다면 <교회 오빠>를 찾아 볼 일이다. 신앙의 감동은 25년간 평론을 해온 기독교영화의 전문가가 보장해드릴 수 있다. Y

ACTS - 사도행전 비주얼 가이드



박성현 안수집사

나는 성경책 읽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믿는 신앙이 이 성경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개신교의 정신이 오직 성경이기 때문이다.

나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단 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쉽게 읽기 어려운 문체와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설 책과 쉽게 편집된 여러 형식의 또 다른 성경책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새번역, 개역개정 등이 그렇다. 나 또한 성경의 이해를 위해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터라 '사도행전 비주얼 가이드'를 읽어 보았다. 책 표지부터 간결한 제목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임을 짐작하게 하는 누가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책을 넘기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든 생각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문장과 단어, 그림도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책장을 쉽게 넘기기 어려웠다. 책읽기를 포기하고 며칠 후 다시 머리말과 사 용설명서 부터 읽어보니 이 책은 다른 쉽게 쓴 성경과 차이점이 있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 책은 가이드라기 보다는 요약 노트에 가까웠다. 그림을 그린 분은 크리스 랜슨이라는 분으로 캐빈 드영이라는 교수이자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유상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수첩이나 노트에 설교를 요약하여 정리한 두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글이나 로 숫자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만화처럼 그림과 기호로 표현한 책이다. 나는 본문이 되는 성경말씀을 먼저 차분하게 읽어 본 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내게 주실 말씀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홈페이지에 있는 영어로 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책을 읽음으로 완성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한 단원(두 페이지 분량)씩 읽는다면 사도행전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한 사도들의 역사하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나믹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

첫째, 비주얼 가이드라기 보다는 큐티처럼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교재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초심자 보다는 깊은 묵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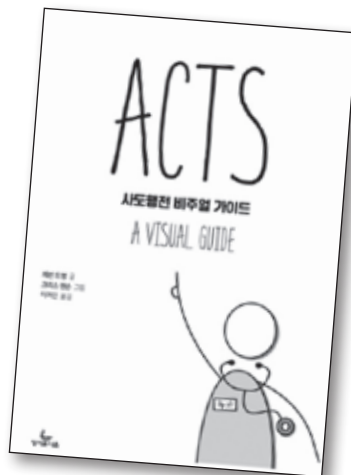
둘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에 얼굴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 사도행전 같은 인물들의 행적과 그들과 갈등 구조를 갖는 여러 인간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눈과 입이 없는 인물들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물론 그림을 그린 크리스 랜드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여타 그림 형식을 빌린 성경 가이드들과는 차이가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정리된 문장이 반말투로 적혀 있고, 글씨체나 크기가 너무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이 점도 집중해서 책을 읽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내 삶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지 케빈드 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린다.

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용설명서를 꼭 읽고 이 책을 읽는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모 진
(마리아 돈암평창)



김 수 영
(4여 보문1)



김 양 산
(여호수아 안암2)



김 종 훈
(아브라함 삼익1)



김 현 분
(유니게 안암6)



나 형 주
(6남 다락방2)



노 윤 경
(청년공동체)



박 은 아
(7여 다락방14)



송 호 섭
(청년공동체)



양 유 미
(7여 다락방2)



유 정 아
(7여 보문3)



이 경 선
(3여 안암11)



이경자
(한나 방학)



이미라
(2여 보문8)



이선로
(여호수아 보문6)



이청하
(7여 다락방2)



임동천
(6남 다락방2)



조문연
(3남 송파)



조인이
(한나 안암6)



최수민
(청년공동체)



황순자
(한나 안암6)

강원지역 산불 피해주민 돕기 특별헌금

- 1,927,500원, 씨채널 모금방송을 통해 전달

북한아동돕기 사랑의 밀가루 저금통

- 5,639,560원(386개) 월드비전을 통해 전달

유아세례식 5월5일(주) 3부 예배

- 유아세례자: 손승준, 이슬빈, 최지호 (3명)

청소년 해피파티(친구초청잔치) 5월5일(주)

소예배실, 메가박스 동대문

영유아축복기도 5월5일(주) 2·3부 예배

11기 영암부모교육 5월8일, 15일(수)

- 주제: 성경적 부모교실(주건자 사모, 「엄마마음 내려놓기」 저자)

모든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5월12일(주) 2, 3부 예배

청년공동체 헌신예배 3부 예배

아버이주일 꽃 달아드리기 · 선물 증정 5월12일(주)

QT세미나 5월12일(주) 찬양예배

- 강사: 유미열목사(前 성서유니온선교회 사역국장)

교회학교 해피파티 5월 26일(주)

성북시찰 성지순례 5월26일-6월6일

- 담임목사 외 18명(타교회 6명), 그리스-터키 일대

새생명잔치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5월24일-6월7일(금)

구국금식기도회(연합구역예배) 6월7일(금)

- 강사: 강철호목사(새터교회)

새생명잔치 6월9일(주) 1-3부예배 및 찬양예배

- 강사: 이성미집사(베이지교회), 특별순서: 한국장로성가단

안암동 복지어울림한마당 6월13일(목) 안암 범바위공원

서울북노회 남선교연합회 순회헌신예배 6월16일(주) 찬양예배

- 강사: 길어진전도사(나룻가지교회) "그리스도인과 통일"

6·25 기념주일 6월30일(주)

- 참전 국가유공자: 김득수, 김진곤, 김척, 서문갑, 석문원, 윤석봉, 장인규, 조인배, 조종익, 조태환, 최문환, 한기문, 홍병훈 (13명)

교사주일 근속교사 표창 7월7일(주) 찬양예배

- 유아부: 송성미(15년), 조은희(15년), 김지연(25년)
- 유치부: 이선미(10년)
- 초등1부: 지소연(15년), 최미경(20년), 최인재(25년)
- 초등2부: 하태철(15년)
- 중등부: 박성호(15년), 한은희(25년), 이관택(30년)
- 고등부: 이병락(10년), 최정원(20년), 안혜원(30년)

교육부 및 청년공동체 여름사역

- 유아부: 7월13일(토)-14일(토) 영암교회 드림센터
- 유치부: 7월6일(토)-7일(주) 영암교회 드림센터
- 초등1부: 7월13일(토)-14일(주) 불광동 팀비전센터
- 초등2부: 7월26일(금)-28일(주) 대천 상동수양관
- 중등부: 7월25일(목)-28일(주) 이천 부래미마을
- 고등부: 7월26일(금)-28일(주) 영암교회 드림센터
- 청년공동체: 8월15일(목)-17일(토) 가평 연인산수련원

예담동산 94기 주바라기 8월12-15일, 예향교회

영암학당 여름특강

- 주일반 "아모스" 이완희전도사, 주중반 "요한계시록" 서우진목사

우신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8월18일(주) 3부예배

- 고등학생: 박지연, 송대범, 유민아, 이강진, 장경빈, 최정우, 한국일(대광고), 표성민(웅문고)
- 대학생: 강성빈, 김별, 김예준, 박성빈, 박은서, 유소영, 이성민, 정문규, 조민영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